

기관 돋보기 | 보람복지원

우리의 소망 '행복한 웃음소리'

청주시 청원구에 위치한 사회복지법인 보람동산 산하 보람복지원(원장 이수형)은 충북 최초의 실비장애인거주시설로 지적장애인 30명이 생활하고 있다.
 2006년 9월 개원을 시작으로 거주장애인들의 건강 증진과 위생 지원을 위해 각종 장비비를 갖추며, 생활환경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평가에서 전 영역 'A등급'을 받으며 충북도내 최우수시설로 자리매김했다.



보람복지원 전경.

보람복지원은 입소 이용인들의 생활공간이며 아파트 형태로 2인 1실의 방이 구성되어 있으며 각 방에는 개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구 등이 배치되어 있다.

이용인별 취향에 따라 여러 가구가 추가적으로 있어 보편적인 가정의 모습과 같다. 우리 시설은 이용인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

장애로 인해 경험하지 못했던 여러 체험, 교육 및 신체적·사회적 능력 향상을 시켜주기 위한 주간 개별 프로그램 및 여가생활 프로그램, 동아리 활동, 사회·문화생활 체험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이용인의 삶에 대한 만족감과 자존감 향상으로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삶의 원동력이 되어주고 있다.

이용인들의 건강 증진과 위생 지원을 위해 다양한 물리치료장비 및 대형세탁장비를 갖추었으며,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이중창 샷시공사 등 시설의 기능 보강 사업을 진행하여 안락한 거주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이용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내·해외여행 등도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스포츠댄스, 축구, 탁구 등 많은 프로그램을 통해 여러 대회에서 수상하는 영예를 누리며 꾸준히 활동하고 있다.

장애인거주시설의 특성상 지역주민이 수시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아니지만 지역사회 관계 유지를 위해 지역주민의 자원봉사, 후원활동 및 시설운영 자문활동 등으로 항상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고 있으며, 입소 이용인의 안전한 외부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다양한 활동이 장애인과 함께 가능하며, 동일 법인의 직업재활시설인 '보람근로원'을 통한 직업활동으로 직업인으로서 경제적 자립이 가능하여 당당한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살아가고 있다.

충분한 자립 준비를 위해 안정적 서비스 제공
 신체·사회적 능력 향상 위한 프로그램 진행

이렇게 이용인들의 생활이 가능하고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시설의 모든 직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역할을 잘 해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직원들이 이러한 역할을 충실히 발휘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내·외부 활동의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직원들 모두 높은 자긍심으로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우리 시설은 이직의 사례가 거의 없이 종사자 모두 오랜기간 근무해오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시설 설립 이후 이용인 개개인에게 일관성 있는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하여 지금까지 우수한 시설로 유지되었다고 생각한다.

시설의 특화사업을 소개하자면 지난 몇 년간 진행되어 온 사회·문화 생활체험 프로그램인 '국도의 중심에서 땅끝 N.E.W.S(North East South)를 외치다'이다.

우리나라의 동서남북 땅끝을 밟아 보는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그 이후

'충청NEWS'(충청도의 명소를 방문), '여행NEWS'(전국의 유명 여행지 방문), '힐링여행'(힐링을 테마로한 여행) 등 각각 테마를 가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각 제목의 테마에 따라 이용인들이 관련정보를 직접 수집하고 여러차례의 조별 회의를 거쳐 세부 프로그램의 내용을 직접 계획·수립하면 직원들이 협조하여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만족도가 가장 높은 사업이다.

또 자립 준비를 위한 '지역사회 체험'이란 공간이 있다. 체험은 4명의 이용인이 1년 단위로 살아볼 수 있는 공간이며, 일반 가정집과 동일하게 만들어져 향후 시설 퇴소 후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공간이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경험해 볼 수 있고 실제 자립을 준비해 볼 수 있다. 이용인의 인지적 차이와 경제적 지원 수준 등 상황에 따라 이용자의 만족도를 충족시키기 위한 직원들의 노력과

수고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한편 근로능력이 부족한 이용인들도 있기에 서비스 제공가능 수준의 격차가 발생된다. 욕구 수준의 높낮이를 고려해야 하는 다양한 노력이 요구되며, 서비스 지원 격차의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

사회적으로 코로나 팬데믹을 겪은 최근에는 경기침체와 경제사정 악화로 인하여 후원금 모금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다양한 사업 진행을 할 수 없는 것에 대해 아쉬움이 많다.

보람복지원은 운영비의 85%만을 지원받는 실비시설이기에 시설 자체에서 충당해야 하는 운영 비용들이 있다. 안정된 생활지원을 위해 시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이 조금 더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지역사회에 바라는 점으로는 위의 내용처럼 열심히 생활하고 있는 이용인들을 위해 지역민들의 물심양면의 후원을 기대한다. 현재 점점 노후화 되고 있는 시설물 유지 관리 및 시설 운영을 위한 기부금품 등을 후원받고 있다.

따뜻한 사랑을 나누는 길은 멀리 있지 않으며, 작은 사랑과 나눔이 큰 힘이 된다.

보람복지원을 방문하는 외부인들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다. '보람복지원 이용인들은 표정이 참 밝아서 보기 좋습니다'이다.

우리 시설은 "어떤 장애인 거주시설이어야 할까?"라는 고민이 많았다. 그 고민의 끝은 '행복한 웃음소리'였다. 그동안 보람복지원은 이용인들과 함께 많은 노력들을 통해 개인에게 지속적으로 최우수 시설로 평가 받아왔다.

생각해보니 이 모든 것은 우리시설 이용인들과 함께 생활하며 일하는 종사자들 모두의 행복을 위함이다. 앞으로 우리 시설은 인연을 맺은 이용인들과 종사자, 그리고 함께 걸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행복한 웃음소리'가 더욱 커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동아리활동 프로그램.



스포츠활동 프로그램.



청주시는 지난 18일 '장애인 체력 인증센터' 개관식을 진행했다.

충북 최초 '장애인 체력 인증센터' 개소

총 27억 들여 2년만에 준공... 장애인 건강 과학적 관리 역할

충북 최초로 '장애인 체력 인증센터'가 문을 열었다.

장애인의 활력 넘치는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 체력 인증센터'는 청원구 사천동 일원에 조성된 장애인 스포츠센터의 프로그램실 부족 확충의 필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생활체육 시설 확충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추진됐다.

국비 10억을 포함한 총사업비 27억 원을 들여 2021년 착공, 연면적 995㎡ 지상 2층 규모로 지난해 12월 준공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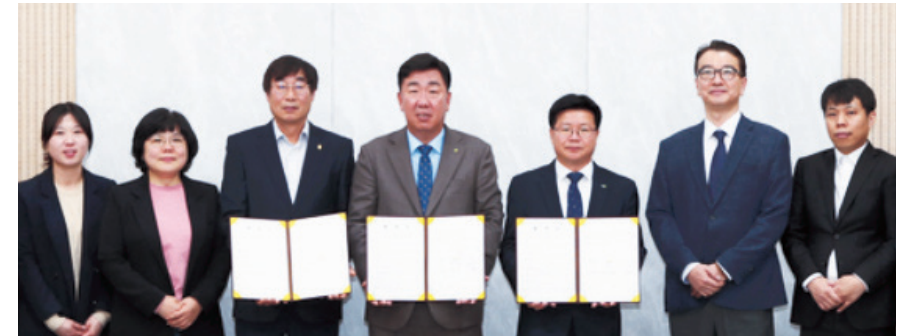
지상 1층에는 체력인증실, 프로그램실, 사무실이 있으며, 지상 2층에는 다목적실, 프로그램실 등이 배치됐다.

지상 1층의 체력인증실은 청주시장

안전체육회가 대한장애인체육회(회장 정진완)의 2023년 신규 장애인체력인증센터 운영 공모사업에 선정돼 매년 1억7,400만원의 기금을 지원 받아 운영할 예정이다.

체력인증실은 장애유형별 체력 측정과 운동처방을 해줘 장애인이 더욱더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체력인증센터가 장애인스포츠센터, 근대 5종 훈련장과 함께 장애인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한 구심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 구분 없이 생활체육활성화를 통한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주시는 지난 6일 LH충북지사·충북주거복지센터 사회적협동조합 관계자들과 '행복하우징 청주' 협약을 체결했다.

청주시·LH충북지사·주거복지센터, '맞손'

행복하우징 청주... 주거위기가구 발굴·지원

청주시는 지난 6일 LH충북지사, 충북주거복지센터 사회적협동조합(대표 이성남)과 '행복하우징 청주'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협약에 따라 LH주거급여 조사원 교육, 맞춤형 주거복지서비스, 주거환경 개선 지원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LH주거급여 조사원은 청주지역 주거급여 수급자 2만3,299가구에 대해 연 2회 이상 가정 방문을 하고 거주 여부와 주택수리 항목 등을 조사하는 역

할을 맡는다. 시는 이들에게 생활 실태를 파악하는 역할을 맡겨 위기가구를 발굴한다는 구상이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한 뜻으로 동참해 주신 LH충북지사와 충북주거복지센터 사회적협동조합에게 감사드린다"며 "발굴된 가구에 대한 맞춤형 주거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취약계층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랑의열매

사랑의열매는 투명합니다

사랑의열매는 충북 약 2,269개 협력 기관들을 지원하며, 자체 모니터링, 정부감사, 국정감사를 받는 대한민국 대표 나눔플랫폼입니다.

기부금의 110%(중앙회 지원 포함)가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전달됩니다.



2022년 지원금액
 21,939백만원

2022년 모금금액
 20,036백만원

지원대상	
아동/청소년	3,853 백만원
노인	4,204 백만원
장애인	1,856 백만원
여성/다문화	1,053 백만원
위기가구	4,749 백만원
지역사회	6,224 백만원

사업분야	
기초생계	10,837 백만원
교육/자립	750 백만원
주거/환경개선	1,273 백만원
보안/의료	1,110 백만원
심리/정서	699 백만원
사회적응훈련	2,493 백만원
소통/참여대	718 백만원
문화/취미	4,059 백만원

해당 지원내역은 2022년 충북사랑의열매 나눔기록입니다. 지난해 219억3천9백만원으로 충북 약 2,269개의 협력기관과 함께 약 22,357명의 이웃을 지원했습니다.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제24조 제1항에 따른 배분결과를 알려드립니다
 · 사랑의열매 홈페이지(www.chest.or.kr)에서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부 상담 043-238-9100 지원 상담 043-238-9200

음성군, 청년센터 '청년대로' 개소

도내 군 단위 최초, '청년의 상상대로, 청년답게'

음성군 종합 청년지원정책 추진 거점 공간의 역할을 수행할 음성군 청년센터 '청년대로'가 지난 6일 개소했다.

'청년대로'는 음성군 도시브랜드 '상상대로 음성'과 연계해 '청년의 상상대로, 청년답게'라는 의미를 담았으며, 지역의 청년들이 함께 소통하고 활동할 수 있는 청년 거점 공간이다.

위탁 운영은 충북 출자출연기관인 (재)충북기업진흥원(원장 허경재)이 맡았으며, 현재 충북청년지원센터도 함께 운영하고 있어 그간 쌓은 사업 운영 노하우가 더

해져 원활한 운영이 기대된다.

청년대로에서는 청년 취창업 지원, 역량 강화사업, 문화·복지 지원, 마음건강지원사업 등 다양한 청년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4시까지 이용 가능하다.

이와 함께 군은 청년들이 지역에 유입해 정착하도록 청년기구가 기준중위소득 60%에 해당되는 경우 월 20만원의 월세를 12개월간 지원하는 국도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8월까지 신청받고 있다.



음성군은 '청년대로' 개소식을 지난 6일 개최했다.

이후 자체 월세 지원사업을 추진해 기준중위소득 150%에 해당하는 경우 월 15만원의 월세를 지원하고, 훈인 3년 이내 신혼부

부의 경우 주택자금 대출잔액의 3%(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청년의 주거 부담까지 적극 해소할 계획이다.

진천군, 새로운 복지모델 '생거진천 케어팜'



진천군이 사회적 약자에게 돌봄, 교육, 고용, 재활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거진천 케어팜(Carefarm)이 5일 개소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진천군이 사회적 약자에게 돌봄, 교육, 고용, 재활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거진천 케어팜' 개소식 개최 후 본격 운영에

들었다.

케어팜(Carefarm)은 치유(Care)와 농장(Farm)의 합성어로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다양한 형태의 농업 활동을 통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 방식으로 유럽 선진국에서 활성화돼 있는 모델이다.

군은 지난 3년간 선도사업을 통해 약 4,100명을 대상으로 총 6,600회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주민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그 결과 2019~2022년 4년 연속 지역사회통합돌봄 우수 지자체 선정, 2020~2022년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사업 우수 및 대상 선정 등 눈에 띄는 성과를 인정받았다.

군은 구 농업개발센터 유희부지를 활용해 거동불편 어르신,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해 시설하우스, 실외 텃밭을 갖춘 케어팜을 조성했다.

또,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 전국 유일의 '케어팜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지난해 12월 제정해 농업의 기능을 다양한 서비스 분야로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충주시, '의료급여제도 바로알기' 책자 배부

의료급여 수급자 위한 여러가지 정보 제공

충주시는 의료급여 수급자를 위한 다양한 의료급여제도와 유의사항이 담긴 '2023년 의료급여제도 바로알기' 책자를 배부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책자에는 올해 달라지는 의료

급여제도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의료급여 지원제도, 유의사항, 의료급여기관 이용 방법, 연장승인, 선택의료급여제도 등의 정보를 담고 있다.

시는 25개 읍·면·동 행정복지

센터, 의료급여 수급자, 복지시설, 병·의원 등에 책자를 배부했다.

신규 의료급여 수급자는 의료급여 사물관리사의 방문·전화상담, 교육을 통해 배부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생활이 어려운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건강생활유지비, 요양비 지원, 장애인 보장구



충주시가 제작한 '2023 의료급여제도 바로알기' 책자.

지원, 중증질환 등록, 본인부담보상금, 청·장년층 틀니·임플란트 지원 등 각종 의료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청주시, '비정상 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

청주시는 여인숙, 지하층 등에서 거주하는 주거 취약계층에게 이주비를 지원하는 '비정상 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반지하, 쪽방, 칸테이너, 민화방 등 비정상 거처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가구 중 국도교통부 훈령인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입주자격 기

초조사(주택상환, 자산, 소득 등) 및 입주자 선정 절차를 거쳐 공공·민간 임대주택으로 이주하도록 선정된 가구다. 시는 3,120만원의 예산으로 78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주비는 4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주거 이전에 따른 이사비와 생필품 구입비 중 현금영수증, 카드 전표 등으로 지출이 확인되는 비용이 인정된다. 청소비, 중

개수료, 술, 담배, 의료, 진료비, 사치품, 식자재 등은 제외된다.

대상자는 주거지 이전 후 전입일 기준 3개월 내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갖추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청주시주거복지센터(☎043-286-2890)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충북사회복지신문

발행인 김영석 사회복지 출판·홍보위원장 박상준
(28583) 충북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87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3층
전화 : 043-234-0840 FAX : 043-234-0849
E-mail : cbbokji043@naver.com 홈페이지 : www.043w.or.kr

단양군, '다사랑노인요양원' 전국 최우수기관 선정



다사랑노인요양원 시설 전경.

단양군 다사랑노인요양원(원장 김순영)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한 '2021년도 장기요양기관 시설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기관(A등급)에 선정됐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한 이번 평가는 2019년부터 3년간 실시한 서비스를 바탕으로 전국 4,423개 기관을 2021년 4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2개년에 걸쳐 진행했다.

다사랑노인요양원은 기관운영, 환경 및 안전, 권리책임, 급여제공 과정, 급여제공결과 등 5개 영역 평가에서 총점 97.55점을 받아 A등급(최우수기관) 선정의 쾌거를 거뒀다.

한편, 단양다사랑노인요양원은 전국 1,725개의 입소정원 30인 이상 평가를 받은 시설 중 충북도 내에서 6번째로 높은 순위로 입소정원 92명의 요양시설과 이용 정원 15명의 주간보호센터를 병설 운영하고 있으며, 사회복지법인 국민복지재단이 2012년부터 단양군으로부터 위탁받아 11년째 운영하고 있다.



제천시시는 지난 11일 제천시 공립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건립 기공식을 진행했다.

제천시, 공립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기공식

치매 환자의 심리적 부담과 가족들의 부양 부담 줄여

제천시가 지난 11일 남부생활체육공원 부지 내에서 제천시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기공식을 진행했다.

이 시설은 총사업비 90억원, 연면적 2,260㎡의 4층 건물로 1층은 40명 규모의 주야간 보호시설, 2~4층은 70명 규모 노인

요양시설로 운영될 예정이다. 시는 이날 기공식을 하고 2024년 7월 준공을 목표로 견실하게 시공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치매 어르신들이 주로 생활하게 되는 생활실은 모두 남향으로 배치해 채광, 통풍 등 효과를 높여 쾌적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설계를 완료했다.

김창규 시장은 "시설 건립을 통해 치매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연계해 치매 환자의 심리적 부담과 가족들의 부양 부담을 줄이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공식에는 김창규 제천시시장, 이정임 제천시의회 의장, 기관·단체장, 공사 관계자와 마을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제천시, AI 노인 케어 인형 '효돌이' 보급

다양한 프로그램 내장... 경증 치매 관리 도와

제천시가 경증 치매 환자와 독거노인 치매 예방과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AI 기반 노인 케어 인형 '효돌이' 보급에 나섰다.

시는 지역 특화사업으로 세명대 작업치료학과와 연계해 18대를 대상자에게 지원했다.

'효돌이'는 돌봄 로봇으로 인형 몸체 내 센서가 내장돼 있어 머리, 귀, 손을 만지면 다양한 프로그램이 재생되기도 하고 정해진 시간에 약을 먹도록 안내도 한다.

또한 치매 예방 체조와 퀴즈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내장돼 일상

생활과 경증 치매 관리를 돕는다. 특정 시간 동안 움직이지 않는 경우 보호자와 관리자에게 알람을 보내며 사용자 안전을 챙긴다.

'효돌이'는 간단한 충전만으로 24시간 깨어있으므로 시는 이 로봇이 어르신 돌봄과 사회적 고감 지원, 고립감(우울감) 해소, 응급 신고 등 다양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효돌이'는 치매 예방관리 사업 활성화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세명대 작업치료학과에서 1년



AI 기반 노인 케어 인형 '효돌이'.

간 장비를 무상 제공하며 원격으로 지원관리를 하기로 해 관리에 대한 부담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시는 추후 대상자와 보호자 만족도를 평가해 이 사업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맛있는 나눔, 사랑의 실천" 푸드뱅크가 함께합니다.

모두와 손잡고 나눔의 세상을 만듭니다.

식품별 모집 가능기한			생활용품별 모집 가능기한		
구분	기부 식품군	모집 가능기한	구분	종류	모집 가능기한
가공 식품	제과류	스낵, 사탕, 껌, 초코렛 등	세제류	세면용 세제, 샴푸, 린스	최소 90일 이전
	즉석식품	면류(라면, 소면, 스파게티 등), 즉석밥, 죽 등		세탁용 세제, 주방용 세제, 욕실용 세제	최소 60일 이전
	냉동식품	아이스크림, 케익, 비닐포장, 스테이크 등	휴지류	화장지	최소 60일 이전
	통조림	참치, 장조림, 과일통조림 등		물휴지	최소 90일 이전
정류 및 식용유	정류	된장, 고추장, 간장, 소금 등	수건류	수건, 종이 수건, 손수건, 행주	최소 60일 이전
	소스류	드레싱, 고기양념류 등		기저귀류	유아용 기저귀, 성인용 기저귀
신선 식품	기름류	식용유, 참기름 등	신체 위생용품류	치약, 칫솔, 구강세정제	최소 90일 이전
	음료류	주스, 탄산음료, 멸균우유, 건강음료(홍삼 등)		머리빗, 면도용품, 손톱깎이	최소 60일 이전
제빵류	육가공류	햄, 소시지, 베이컨 등	여성 위생용품류	생리대	최소 60일 이전
	농산물	두부, 순두부, 콩나물, 호박, 파, 김치류 등		청소·환경 위생용품류	고무장갑, 걸레, 빗자루, 쓰레받기, 쓰레기통, 수세미
		최소 3일 이전 (제과점은 판매당일)		가정용 살충제	최소 90일 이전

충북광역기부식품지원센터
(충북광역푸드뱅크)

기부방번호
043) 234-1377

광역 대량 기부

전국 어디서나
1688-1377

지역 소량 기부

보은군,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추진

3년간 매월 20만원, 최대 720만원 지원

보은군은 다양한 청년 인구 유입을 통해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활력이 넘치는 고장으로 나아가기 위해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은 취업·창업, 농업을 목적으로 전입하는 청년들의 주거비

(월세) 지원을 통해 주거에 대한 경제적 부담과 심리적 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민선 8기 시작일인 2022년 7월 이후 취업, 창업, 농업을 위해 보은군으로 전입한 만 18세~45세 이하인 청년은

로 2023년 1월부터 현재까지 가구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이며, 임차보증금 3,000만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관내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2023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청년 가구이다.

단 전국 기준 본인 명의의 주택 소유자,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신청인(또는 가구원)의 직계존비속 명의의 주택을 임차해 거주하는 자,

정부지원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등 국가 및 지자체의 유사사업 지원 대상자, 옥탑층 등 건축물대장 상 주택이 아닌 건물을 임차해 거주하는 자는 제외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는 20가구는 3년간 매월 20만원씩 최대 720만원의 월세를 지원받게 된다.

오는 5월 4일까지 군청 기획감사실 인구정책팀(☎043-540-3027)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옥천군, 모든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용 100만원 지원

5월부터 시행...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옥천군은 민선8기 공약 사업인 '산후조리비용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군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을 돕고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5월부터 시행하며 출생아당 100만원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신생아 또한 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경우이다.

지원금 신청은 출생신고 시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통해 원스톱으로 할 수 있다. 또한 2023년 1월~4월 출생아는 소급 적용해 오는 5월부터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군은 이밖에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임신 전 산후 영양제 지원, 유축기 대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난임치료비 지원, 임신부 건강관리교실 운영을 진행한다.

황규철 옥천군수는 "산후조리비용 지원이 부모들의 출산·산후 회복 등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소 건강관리과 모자건강팀(☎043-730-2153)으로 문의하면 된다.

괴산군, '괴산행복 누리센터' 건립 착수 보고회

지하1층, 지상5층 규모로 2024년 준공

괴산군 드림스타트, 취업지원센터, 여성단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자원봉사센터 등이 입주할 '괴산행복누리센터'가 건립된다.

괴산군은 지난 12일 군청 회의실에서 괴산읍 도시재생 인정사업 괴산행복누리센터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관계 부서장, 전문가 등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표에 이어 질의·응답

과 의견 수렴 시간을 가졌다.

'괴산읍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진행되는 '괴산행복누리센터'는 2024년 준공을 목표로 14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괴산읍 동부리 675-2번지(괴산읍 여성회관) 일원에 연면적 4,349㎡,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 규모로 건립될 계획이다.

'괴산행복누리센터'에는 괴산군 드림스타트, 취업지원센터, 여성단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자

원봉사센터 등이 입주할 예정으로 노인문화복지, 노인맞춤돌봄센터, 주민협력공간, 공동체활동, 사회단체업무 등의 공간이 조성될 예정이다.

군은 노후형 공공건축물인 여성회관을 재생해 군민들을 위한 공공서비스 거점시설로 활용할 계획이며, 군민들의 생활 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괴산군 관계자는 "괴산읍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실용적인 디자인을 고안해 누구나 찾고 싶은 건축물을 설계할 예정"이라며 "괴산행복누리센터가



괴산행복 누리센터 건립 조감도.

괴산읍 내 랜드마크 건축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옥천군, 비대면 '마음건강 자가검진기' 운영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부정적 시선 완화

옥천군보건소와 옥천군정신건강복지센터(센터장 임성진)는 지역주민 누구나 비대면 마음건강 자가검진을 할 수 있도록 마음건강 자가검진기 3대를 구매해 보건소 민원실과 통합복지센터 1층에 비치했다.

마음건강 자가검진기는 평일 오

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성별과 나이를 입력하고 개인정보 동의 후 검진을 완료하면 정신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검사항목은 우울, 불안, 조기 정신증 등 총 8가지이며 검사별료 3-5분

정도 소요된다.

검사 방법은 터치스크린 방식으로 해당 문항을 선택하고 완료 버튼을 누르면 결과를 현장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면 메일로 결과 전송도 가능하다.

검진 결과 만약 고위험군으로 확인되면 검진기에 입력한 전화번호를 통해 개별상담도 받을 수 있다.

괴산군, '괴산아이사랑꿈터' 개소식 개최



괴산군이 지난 11일 충북육아종합지원센터 괴산분소인 '괴산아이사랑꿈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맘쓰허그 장난감 도서관, 아이 숲 놀이터 운영

괴산에 영유아 전용 실내 놀이터인 '괴산아이사랑꿈터'가 문을 열었다.

이날 개소식에서는 한국사회

복지협의회(회장 김성이)와 주택도시보증공사, 괴산군도시재생지원센터, 충북육아종합지원센터에 감사패가 수여됐다.

괴산아이사랑꿈터는 괴산읍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하나로 40억원을 들여 괴산읍 서부리 터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691.72㎡ 규모로 준공했다.

이 곳에는 맘쓰허그 장난감 도서관, 아이 숲 놀이터, 교육실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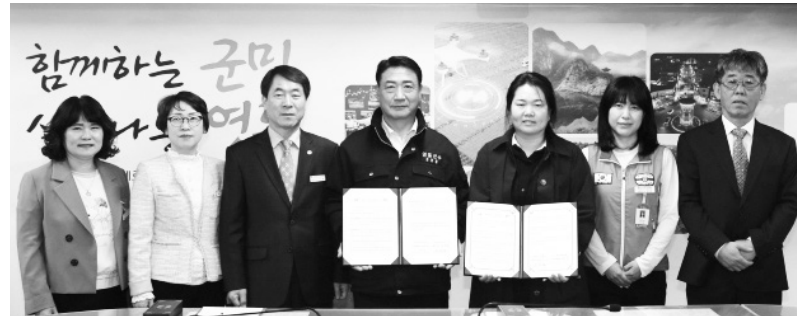
이 들어섰다.

맘쓰허그 장난감 도서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함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회공헌사업이다.

군은 지원금 1억7,000만원으로 가정에서 구입이 어려운 대형 장난감과 연령별 놀잇감, 도서 등 약 2,000여점을 마련해 대여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이 숲 놀이터는 아이와 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부모의 육아 고민을 덜어주기 위한 양육 상담을 진행해 지역 내 원스톱(one-stop) 육아지원 서비스를 담당한다.

영동군, 주민 복지증진 위해 업무협약 체결



영동군과 (사)한국나눔연맹이 지역의 나눔문화 확산과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한국나눔연맹과 물적·인적 자원 교류

영동군과 (사)한국나눔연맹(이사장 안미란)이 지난달 30일 지역의 나눔문화 확산과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군청 상황실에서 열린 협약식

에는 정영철 군수와 이은열 한국나눔연맹 이사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지역복지를 위한 원활한 인적·물적 자원 교류, 지역 주민 복지 증진, 협약사항 이행

을 위한 유기적 협력체계 유지 등에 적극 지원·협력하게 된다.

지역사회 내의 도움이 필요한 위기 가구 발굴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군은 지역경제를 넘은 민·관 협력체계 구축으로 지역 내 복지 네트워크를 한층 더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정영철 군수는 "한국나눔연맹과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한국나눔연맹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지역내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을 두루 살피며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한국나눔연맹은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에서 사회적 약자를 돕기 위해 지난 1992년 1월 18일 설립된 단체로 독거노인과 결식아동을 대상으로 무료 급식사업과 생활여건 개선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증평군, 의료급여 대상자에 '건강꾸러미' 전달

전달 후 건강관리 상담 진행

증평군은 의료급여 사례관리 대상자 50여명에게 이달 건강꾸러미를 전달한다.

건강꾸러미는 마스크, 파스, 밴드와 의료급여사업 안내문 등으

로 구성돼 있으며 의료급여담당자와 의료급여 사례관리사가 건강꾸러미를 직접 전달한 후 상담을 진행해 효율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사업은 의료급여 수급자들이 진료비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는 것을 악용해 의료기관을 필

요 이상으로 과다 이용하는 사례를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또 건강꾸러미 전달뿐만 아니라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전년도 의료기관 미이용자에 대한 전수조사도 실시해 의료이용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의료급여 제도 안내 및 서비스 연계로

수급자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건강관리가 힘든 수급자의 건강 상태를 살피고 의료 급여 제도를 사전에 안내해 적절한 의료 이용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영동군, 2023 사랑·행복나눔 릴레이 기부천사

영동읍체육회 영동군에 100만원 기탁

영동군 영동읍체육회가 영동읍사무소를 찾아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전달해 달라며 체육회 행사에서 우송 상금으로 받은 100만원을 기탁했다.

2개 팀으로 나눠 여러 체육경기를

영동읍체육회는 영동읍에서 추진하는 나눔캠페인 '2023 사랑나눔 행복나눔 릴레이'의 7번째 주자로 나서며 특별한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진행하며 화합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 중 소통팀이 우송해 상금 100만원을 획득했다.

상금을 지역사회에 돌려주고 지역 주민 복지증진 등 의미있는 일에 사용하고 싶어 회원들의 뜻을 모아 성금을 기탁하기로 했다.

충북사회복지신문

광고 게재 안내

지면	크 기	배색	금액(원)
1면	4단 (360mm×138mm)	컬러	300,000
	제호 옆 돌출 (67mm×33mm) (3개월)	컬러	100,000
2면~7면	4단 (360mm×138mm)	흑백	200,000
8면	4단 (360mm×138mm)	컬러	250,000

게재 개월 및 기타 상황에 따라 협의 조정 가능

문의 충북사회복지협의회 김세나 사회복지사 (T.043-234-0840~2)

위기정보 44종으로 확대, 복지사각지대 발굴

의료기구 발굴 정보에 의료비 수도·가스요금 체납 등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 24일에 발표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대책'의 후속 조치로, 정확한 위기기구 발굴 및 신속한 소재 파악 등을 위한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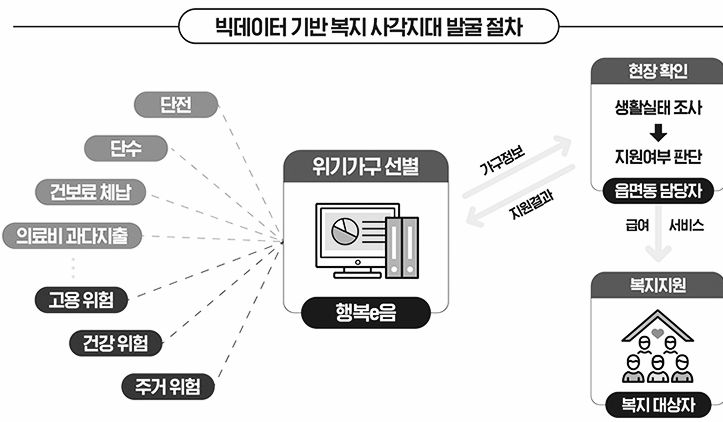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첫째, 위기기구가 누락되지 않도록 입수 중인 금융 연체금액 범위는 1,0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상향하고, 수도·가스요금 체납정보, 의료비 과다지출자 정보 등 위기징후로 입수하는 대

상 정보를 확대한다.

2023년 12월부터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처리하는 정보가 39종에서 44종으로 확대된다. 둘째,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 주민등록 사실조사 등을 통해 확인한 실제 주소와 연락처 정보를 위기기구 발굴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성매개감염병 진료정보를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으로 신규 연계하여 위기아동 발굴 시 활용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김기남 복지행정지원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위



빅데이터를 활용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업무절차.

기구가 발굴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예방하는데 초점을 맞춘 것"이며, "민관협력 발

굴체계 강화 등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대책'의 다른 과제 또한 조속히 이행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출산 정책 수립을 위한 '청출어람단' 구성

2030 청년 200인... 청년의견 수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청년세대의 의견이 반영된 체감도 높은 저출산 정책 발굴을 위하여, 2030 청년 200인의 '청출어람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8일 윤석열 정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올해 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저출산 정책 목표를 '결혼·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는 사회 환경 조성'으로 제시하고, 기존 저출산 대책

중 정책 연관성·효과성·체감도 등을 고려한 핵심분야와 주요과제를 신중하게 선택하여 집중하고 2030 청년세대 의견수렴과 사회적 참여와 공감대 확산에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 등 7개 부처 2030 청년자문단(25인)과, 공문조사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가 성별, 연령, 혼인여부 및 자녀유무 등을 고려하여 선발한 수도권 및 지방 청년 200인은 4월 한달간 '청출어람단'이라는 의미를 품은 '청출어람단'으로 활발히 활동하게

된다.

우선 '청출어람단'은 저출산 관련 정부 기본계획 및 대책 자료와 인구 분야 전문가 강의영상, 연구자료 등을 제공받아 충분히 사전 학습 후 KBS 스튜디오에서 열리는 토론회에 참여한다.

집중적으로 실시되는 토론회는 전문가 발제(1일차 3시간 예정) 시간 외에는 기존 저출산 대책 중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체감도 높은 핵심과제 발굴과 새롭게 추가가 필요한 보완대책 발굴을 위한 토론회(전체토론 및 분임토론)로 진행된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청년이 직접 발굴한 핵심과제와 보완과제는 향후 '청년제안'이라는 이름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여성·청소년·가족 분야 지자체와 정책협력 강화

현장 의견 적극 반영, 중앙·지자체 간 정책 협력 지속

여성가족부는 여성·청소년·가족 정책이 지역 현장에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와 주기적으로 소통하며 정책과제를 발굴한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의 대표사업인 한부모가족, 아이돌봄, 경력단절여성, 폭력피해자 지원과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국민들의 정책 체감도 향상을 위한 개선과제를 논의했다.

첫째, 여성가족부는 올해 여성인력 양성과 활용을 확대하고,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해

'법정부 여성인력양성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다.

이에, 지자체별 여성 고용과 일자리 부조화(미스매치) 현황을 파악하고,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여성인력 양성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둘째, 지난해 10월 발표한 '학교 안팎 청소년지원 강화대책'의 후속 조치로 지자체, 학교·교육청, 청소년시설 간 연계를 강화하는 '정청(청소년정책동행)을 지속 이행하고, 지역의 우수사례를 확산하기로 했다.

셋째,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1인 가구, 노부모 부양가족 등 새로운 복지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사각지대 없는 보편적 가족서비스를 지원하는 한편, 지역 내 공간적 기반을 조성하는 가족센터 건립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여성가족부는 성폭력, 스토킹 등 복합적인 피해, 정신질환 피해자 등 고난도 사례에도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올해부터 추진 예정인 '5대 폭력 피해자 통합지원 사업(통합솔루션 지원단)'의 운영 방안을 설명하고 지자체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전문봉사단이 되어 나눔을 실천하세요! 지역사회봉사단!

지역사회봉사단이란?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시스템(vms)에 등록된 다양한 재능과 특기를 갖춘 봉사자들이 모여 사회복지기관·시설·단체·소외계층에게 지속적으로 맞춤형 봉사활동을 하는 전문 자원봉사단

위촉기준

vms 가입 2인 이상으로
구성되고 연 4회 이상 활동
가능 단체

봉사단 혜택

- 활동재료비 일부 지원
- 자원봉사활동 시간(vms) 인정
- 관리 및 봉사활동 연계
- 다양한 문화공연 초청

SSN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복지사업과 박민정 코디네이터 전화) 043-234-0840

자살률 30% 줄인다... '정신건강검진은 2년마다'

5차 자살예방기본계획 확정... 조현병 등 검사 질환 확대

보건복지부는 제5차 자살예방 기본 계획을 공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고립과 경제적 어려움 등 사회경제적 변화로 자살률이 급증할 가능성에 대비해 지역사회 생명안전망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우울증 등 정신건강 위험 신호를 재빨리 발견하여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정신건강검진도 신체 건강검진과 동일하게 2년마다 실시하고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생명존중 안심마을이 조성된다.

우선, 정신건강 검진의 빈도와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검사질환은 우울증 외에도 조현병·조울증 등으로 확대하고 검진 결과 위험군으로 판단되면 정신건강의학과 등으로 연계하여 조기에 진단,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전국 17개 시·도에 생명존중 안심마을을 조성하여 지역특성에 따른 맞춤형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한다.

청소년이 많은 신도시, 어르신이 많은 농촌에서는 '가칭'화생 마음건강 마을 또는 어르신 마음건강 마을, 주거 환경에 따라 아파트 지역은 '가칭'생명사랑아파트' 등으로 운영된다.

자살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고 전문기관으로 연계시키는 생명지킴이 양성 및 주민 동아리를 구성하여 자살예방활동을 하게 된다.

지난 발생 이후 자살 사망·사노 위기대응체계 가동을 위해 트라우마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를 중심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트라우마센터는 초기 트라우

마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자살 위험성을 평가하고 자살 고위험군은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에서 2년간 분기별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밀착 관리한다.

일반인 대비 자살위험이 높은 자살시도자·유족의 정보를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하여 상담·치료, 지원·통합 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한 일상 회복을 지원한다.

특히, 2023년부터 고위험군이 빠르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치료비 지원을 시작한다. 지원 내용은 자살시도로 발생한 신체 손상에 따른 치료비, 정신과 치료비, 심리상담비 등이다.

경제 위기군은 경제문제가 자살로 이어지지 않도록 복지멤버십 제도 등 복지 전달체계와 연계하여 정신건강·자살예방 서비스를 적극 안내하고 위험군은 조기 발굴·개입한다.



5월초 코로나 위기단계 하향, 확진자 격리의무 단축

방역규제 조정 로드맵 공개

오는 5월 초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기간이 7일에서 5일로 단축될 전망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은 크게 네 가지 원칙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질병위험도 하락과 지난 3여년 동안의 경험으로 성숙된 사회적 인식을 감안해 일반 지역사회는 자율 및 권고 기조로 완전 전환한다.

이어 코로나19 진단·치료는 전담 의료기관이 아닌 모든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일반의료 체계로 완전 편입하고, 고위험군 보호 조치는 지속 유지해 위중증·사망 등 건강피해를 최소화한다.

또한 감염병 재난 대응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검사비, 치료비, 치료제 무상 지원 등의

전면 지원 체계는 조정하되,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일시 전환이 아닌 점진적으로 추진한다.

이러한 전략 하에 일상적 관리 체계로의 전환은 의료계 및 지자체 등 현장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며 단계별로 안전하게 이행할 방침이다.

1단계에서는 위기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하고 방역 조치를 전환을 준비한다.

제15차 WHO 코로나19 국제보건규칙 긴급위원회(4월 말~5월 초 예상)와 주요국의 비상사태 해제 상황을 감안해 위기평가회의를 개최하고, 단계 하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경계' 단계로 하향하면 범부처 비상대응 체계에서 보건·방역 당국 중심 체계로 대응 수준을 완화하며, 위기 단계를 하향하여 확진자 격리 의무를 단축해 시행한다.

2단계는 감염병 등급 조정(2급→4급)과 함께 주요 방역조치를 크게 전환하는 단계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와 확진자 격리 의무 등을 전면 권고로 전환한다.

다만 감염 때 건강피해 우려가 큰 감염 취약시설과 의료기관에서는 선제검사 등 고위험군 보호 조치를 유지한다.

일반의료체계로 완전 전환됨에 따라 검사·치료비 등 자부담이 필요하나, 취약계층 보호와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점진적으로 조정하고, 특히 감염 취약층에는 재정과 건강보험 등을 활용해 일부 지원을 유지할 계획이다.

3단계는 인플루엔자와 같이 엔데믹화 되어 상시적 감염병 관리가 가능한 시기(2024년 이후 예상)로 먹는 치료제, 예방접종 지원 등은 이 시기 이전까지 유지할 계획이다.

괴산군노인복지관, AI 인지건강 추적관리 나서



괴산군노인복지관은 한국교통대학교와 지난달 30일 '맑은내친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교통대와 뇌건강 챙겨주는 말벗 '맑은내친구' 협약 인공지능 활용 치매 위험도 예측·인지건강 강화

괴산군노인복지관(관장 황지연)과 한국교통대학교 복지·경영학과(학과장 전순영)는 지난달 28일 뇌건강을 챙겨주는 말벗 '맑은내친구' 업무협약 체결식을 진행했다. 이번 협약은 음성인식 인공지능 '맑은내친구' 앱을 활용하여

괴산군 어르신들의 인지건강을 확인하고 치매 위험도를 조기에 예측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2021년 기준 국내 65세 이상 고령자 중 치매 환자 추정 인구는 약 89만명이며, 2050년에는 약

300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어 치매환자와 관리비용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그러나 치매를 근본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치료제 개발은 난항을 겪고 있으며, 성공확률이 매우 낮아 의약품으로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또 치매는 무증상 기간이 3~20년이며, 증상 발현 시점은 질환이 이미 진행된 상태이므로 조기 발견만이 사실상 치매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대안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양 기관은 음성인식 인공지능인 '맑은내친구' 앱을 활용하여 치매 위험도를 조기에 예측하고, 인지건강의 추적관리를 통해 지역사회 치매관리 수준을 더욱 강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맑은내친구' 앱은 음성과 톤, 언어패턴, 단어선택, 구문 및 문법 등의 변화를 통해 인지기능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는 기존 연구들에 기반하여 개발되었으며, 음성기반 인지건강 위험도 예측 AI 엔진이 탑재되어 15초 동안의 말소리 검사로 정확도 92%의 인지건강을 확인할 수 있다. 주요 협약내용은 음성 AI 기반 '맑은내친구' 사용자 교육, '맑은내친구'의 안정적 보급을 위한 주민조직원화, '맑은내친구'의 사용자 모니터링, 인지건강 위험 대상군 집중 사례관리, 뇌건강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디지털 복지기술 적용모델 공동개발, 디지털 복지기술 활용 사회복지 전문 인력 양성 등이다.



충북도는 충북장애인단체연합회 주관으로 제43회 충북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충북장애인단체연합회, '제43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장애인인과 비장애인 소통과 상호이해 기대

충북도는 사단법인 충북장애인단체연합회(회장 변창수) 주관으로 제43회 충청북도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를 지난 20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표창 49명 등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아울러 장애인의 날 기념 유공 대통령 표창자로 선정되어 충북 장애인단체의 위상 제고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 연합회 변창수 회장은 "장애인의 날이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더불어 행

복한 사회를 실현하는 작은 관심의 시작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장애인주간을 맞아 도내 곳곳에서 15여개의 풍성한 기념행사 및 캠페인 등이 전개될 예정이다.

자세한 일정 및 내용은 각 시군의 장애인 담당부서 또는 도 노인장애인과의 ☎043-220-3072로 문의하면 된다.

충북장애인종합복지관, "고독사 함께 막아요"

충주호암행복주택·주거행복지원센터와 협약



충북장애인종합복지관과 충주호암행복주택 주거행복지원센터가 지난 3일 고독사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충북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이승환)은 고독사 예방사업 '고립보다 Go Life'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이번 충주호암행복주택·주거행복지원센터와의 협약을 통해

고립가구 발굴 및 햇살마루도서관 공간을 공유하여 지역사회 구성원이 다양한 활동으로 교육, 전시와 같은 문화행사를 개최하는 것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고독사 예방사업은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및 대응체계 구축사업'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을 통해 충북장애인종합복지관이 충주시에 거주하는 1인가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작년 8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 사업은 2022년 7월부터 2025년 8월 총 3년에 걸쳐 진행되며, 충주시 소재 거주하는 1인가구 장년층(만50세~64세이하) 및 노인, 장애인 대상으로 다양한 서비스들을 지원하며, 지역사회 내에 다양한 발굴 네트워크와 지역주민 조직화를 통해 사업 종료 후에도 고립가구 인근 주민조직 형성으로 보다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승환 관장은 "복지 사각지대의 간격을 줄이고 적극적인 발굴을 통해 고독사 예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진천시니어클럽, '클린마을 고고고' 캠페인

'줍Go, 권Go, 건강올리Go'... 지역환경 개선 이바지



문백면 농다리 일원에서 '클린마을 고고고' 캠페인이 열렸다.

진천시니어클럽(관장 이은주) 원에서 시니어클럽 직원 및 노인은 지난 18일 문백면 농다리 일

호선 국회의원 부인 이정혜 여사, 임영은 도의원, 진천장미로타리클럽 회원 등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클린마을 고고고' 캠페인을 실시했다.

'클린마을 고고고' 캠페인은 지역사회의 구석구석을 깨끗하게 하는 환경정화 활동으로, 이번 농다리 일원을 시작으로 문백 연곡마을, 이월 체육공원 등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은주 관장은 "진천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농다리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하는 일에 동참할 수 있어서 뿌듯하고, 참여자 어르신들과 화합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감사하다"며 "또 '클린마을 고

고고' 캠페인을 더욱 활성화시켜서 지역사회 환경개선에 이바지 하겠다"고 밝혔다.

임영은 도의원은 "진천의 얼굴이나 마찬가지로 농다리가 어르신들 덕분에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어서 군민을 대표해 감사드리고, 좋은 일 많이 하는 진천시니어클럽 직원들, 진천장미로타리클럽 회원들과 함께 활동할 수 영광이다. 앞으로도 좋은 일에 자주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클린마을 임모(75) 참여자는 "사무실에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함께해 주어 감사하고, 환경정화 활동에 더욱 열심히 참여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자주 있어서 진천의 모든 곳이 깨끗해지고 클린마을 사업단이 더욱 활성화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음성군장애인복지관, 숲체험교육지원사업 '우수'

계층 간 편견·오해 감소... 지역 내 상호지지 등

음성군장애인복지관(관장 전호찬)은 2021년~2022년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복권기금을 이용하여 지원하는 공모사업인 숲체험교육지원사업을 진행했고, 평가 결과 '우수'를 받는 쾌거를 이뤘다. 이번 평가에서는 사업예산 집행

실적 및 사업비 집행관리의 적정성, 사업내용이 사회적 가치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는지 여부 등 5개 영역에 걸쳐 실시됐다.

숲체험교육지원사업은 음성군에 거주하는 노인, 장애인, 결혼이주여성에게 함께 조를 이뤄 매주

1회씩 국립재천치유숲, 국립횡성숲체원 등 다양한 지역의 숲체험을 통해 계층간의 편견과 오해를 감소시키고 지역 내 상호지지와 이해의 장을 넓혔다.

숲체험교육지원사업 담당 신기은 사회복지사는 "숲체험교육지원사업을 통해 참여자들에게 행복을 드릴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고, 앞으로도 이와 같

은 기회를 제공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음성군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들의 보다 나은 삶을 응원하기 위해 상담, 사례관리, 기능강화지원사업, 장애인가족지원, 역량강화 및 권익옹호, 직업적응훈련 및 취업지원, 지역사회네트워크, 문화여가지원사업, 사회복지서비스, 운영지원사업, 주간보호센터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장애인복지에 공금한 사항은 음성군장애인복지관 ☎043-883-2900으로 문의하면 된다.

진천군정신건강복지센터, '마음약국' 운영

아동·청소년 건강한 사회구성원 성장 도모

진천군정신건강복지센터(센터장 김태우)가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마음약국을 운영한다.

교에 이어 초등학교 5개소와 지역아동센터, 아동·청소년 유관 기관에 다니고 있는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마음약국'은 마음 자가검진과 정신건강 사정평가를 위한 캠페인을 실시하며, 고위험군으로 발굴된 아동과 청소년에게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심리연극 프로그램

를 가족상담을 연계하고 정신과 임상군에 치료비를 지원한다.

김태우 센터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프로그램과 상담, 치료비 지원을 연계해 아동과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진천군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아동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상담·평가, 치료비 지원 등 맞춤형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충북 내게 꼭 맞는 사회복지정보를 한눈에!



공정한 성장기회, 두텁고 촘촘한 아동복지 실현

'아동발달지원계획' 가입대상 단계적 확대 추진 아동 정신건강 실태조사·정신건강서비스 고도화

정부가 취약계층 아동의 자선형성을 위한 '아동발달지원계획' 가입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보호아동 가정형 거주로의 전환 로드맵'을 마련한다. 아울러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책 추진을 위해 영유아 발달지연 실태조사와 아동 정신건강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코로나19 이후 심화된 아동과 취약계층 아동 간 삶의 질 격차, 정신건강 위험 등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했다. 아동정책 추진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아동정책 추진 방안 주요내용

미래세대에 대한 공정한 기회 부여, 약자 복지 강화 등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을 반영하여, 2027년까지의 아동정책 과제와 추진계획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코로나19 이후 심화된 발달 지연 및 학습 결손, 일반아동과 취약계층 아동 간 삶의 질 격차, 정신건강 위험 등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했다. 아동정책 추진방안은 '모든 아동이 행복하게 꿈꾸며 성장하는 사회'를 비전으로, 모든 아동 발달·성장 지원, 취약계층 아동 복지체계 강화, 아동 중심 정책 추진기반 마련의 3대 분야 10대 과제로 구성됐다.

모든 아동 발달·성장 지원

아동기 발달과 건강·의료서비스 확충에 집중 투자한다. 보건소 전문인력이 신생아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아동 건강관리, 육아방법교육 등을 제공하는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 지역을 2027년까지 전국 확대를 추진한다. 생후 24개월 미만 아동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 5%를 0%로 낮추고,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생후 2년까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의료를 지원한다. 지역 내 소아과 전문의가 아동 발달, 심리, 건강관리 교육과 상담을 제공하는 '아동 일차 의료 심층상담 시범사업'을 올해부터 실시하고, 학생건강검진을 2025년까지 국가건강검진체계로 통합한다.

코로나19 이후 심화된 발달지연, 아동정신건강 문제에 대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책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올해 영유아 발달지연 실태조사와 아동 정신건강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후속 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아동과 부모가 안심할 수 있도록 아동 의료서비스 제공 기반을 강화한다.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운영 후 2024년까지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소아암 지방거점병원 등 중증·응급 아동환자의 의료서비스 기반을 확충한다.

* 초6학년 2만여명 대상, 아동별 정기적 구강관리·치아관리습관 형성 등 지원(21.5~24.4.)

아동 환자 특성에 맞는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의료인이 전화상담을 제공하는 '24시간 상담센터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중증소아환자 재택치료 서비스도 강화한다.

배움에서 소외되는 아동이 없도록 촘촘한 기초학습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단절 없는 학습기회를 제공한다.

희망하는 모든 아동에게 양질의 촘촘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초등학교 수업 전·후 시간에 교육·돌봄이 통합 제공되는 '늘봄학교'를 2025년까지 전국 확대한다. 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도 저녁 8시까지 운영하는 등 촘촘한 틈새 돌봄을 제공한다.

2027년까지 아이돌봄서비스를 획기적으로 확대(22년 7.8만 가구의 3배 수준)하고, 2자녀 이상 가정에 대한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취약계층 아동 복지체계 강화

취약계층아동이 원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아동발달지원계획*(디딤씨앗통장) 대상의 단계적 확대를 추진한다. 현재는 양육시설 등에서 생활하는 보호대상아동은 전 연령, 기초

수급가구의 아동은 12세 이상인 경우 아동발달지원계획에 가입할 수 있다.

앞으로는 더 많은 취약계층 아동이 아동발달지원계획을 통해 자선형성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연령기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가입대상의 단계적 확대를 추진한다.

* 취약계층 아동의 저축액에 대해 정부가 두배의 금액(월 10만원 한도)을 적립

가정에서 분리된 보호대상아동*이 원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원가정 관계 개선·복귀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학대피해아동의 경우 재학대 방지를 위해 집중 사례관리도 실시한다.

보호대상아동의 시설중심 보호에서 가정형 보호로 전환하기 위해 아동보호체계를 혁신한다.

* 학대, 부모 빈곤 등으로 원래의 가정에서 분리되는 아동으로 매년 3~4,000여명 발생 아동양육시설이 아동친화적 형태로 전환할 수 있도록 1인 1실에 대한 기능보강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치료실·놀이실 설치에 대한 지원도 지속 확대한다.

가정위탁* 부모에게 양육코칭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여, 위탁아동에 대한 돌봄의 질을 제고하고, 위탁아동의 성장·발달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는 등 정부 지원 필요 사항을 발굴하여 지원을 확대한다.

* 보호대상아동을 적합한 가정에 일정 기간 동안 위탁하여 보호하는 제도

특히, 보호대상아동이 시설이 아닌 가정적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10년 이상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호아동 가정형 거주로의 전환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행 입양기관 중심의 입양체계를 국가·지자체가 책임지는 아동중심 입양체제로 전환하고, 국내입양활성화 기본계획도 수립한다. 이를 통해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비준도 추진한다.

* 국제적인 아동매매 방지 및 아동인권보호를 위해 마련된 국제법 체계(93.5.29 채택, '95.5.1 발효, '23. 현재 108개국 가입)

출생미신고아동 보호 등 보다 촘촘한 아동복지체계를 구축한다.

모든 아동의 출생 신고될 권리를 보장하고, 공적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의료기관 출생통보제*와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 도입을 추진한다.

* 의료기관이 아동 출생 정보를 시·읍·면장에게 통보, 부모의 출생신고 누락시 최고 및 직권 출생기록

** 미등록 이주아동 등 국내 출생 모든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번호 부여

위기 임산부가 일정 상담을 거쳐 의료기관에서 익명으로 출산하고, 태어난 아동은 지자체에서 보호하는 보호출산제도 보완적으로 도입을 추진한다.

보호자의 질병·장애, 조손가정 등의 사유로 아동이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할 우려가 있는 돌봄위기가구 아동 실태파악과 복지서비스 욕구조사를 올해 실시하고, 지원방안도 지속 발굴해 나간다.

아동 중심 정책 추진기반 마련

다양한 분야에서 아동의 정책 참여와 표현의 기회를 확대한다.

아동정책조정위원회, 탄소중립위원회 등 아동 의견 제시가 필요한 주요 정부위원회에 아동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위원을 선임하고, 대한민국 아동총회* 제시 의견의 정책반영 여부에 대한 점검·평가를 강화한다.

* 전국 아동대표들이 모여 정책개선사항 논의하고 정부에 의견서 전달(04년 ~)

정부가 아동과 장애아동의 눈높이에 맞게 명확하고 알기 쉬운 표현 방법으로 정책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2024년에 아동 정보제공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교육도 실시한다.

틱톡, 유튜브 등 온라인 콘텐츠 제작자가 콘텐츠 제작 시 아동 사생활 등 아동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아동 인권보호 체크리스트'를 개발하여 배포하고, 학교에서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도 강화한다.

아동기본법 제정 등 아동정책 추진 기반을 강화한다.

아동 관련 입법, 정책에 대한 정부부처의 사

전·사후 아동정책영향평가* 참여를 활성화하고, 현재 중앙단위로만 수립되는 아동정책 기본계획을 시·도 단위에서도 수립·시행하도록 추진한다.

* 아동 관련 정책이 아동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제도(19.~)

아동의 건강한 출생과 성장 지원을 뒷받침하기 위해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와 국가·사회의 책임을 명시하는(가칭)아동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학대위기·피해아동 발굴

현 위기아동 발굴체계에서 포착하지 못한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특히 학대발견율이 낮고 사망사건 비중이 높은 만 2세 이하 아동 집중 발굴과 학대피해아동 지원 서비스를 강화한다.

만 2세 이하의 위기 아동을 촘촘히 발굴하고, 조기개입체계를 강화한다.

특히, 필수예방접종을 하지 않았거나, 최근 1년간 의료기관 진료를 하지 않은 만 2세 이하 아동(약 1.1만명)을 대상으로 집중조사(4.17~. 3개월간)를 실시한다.

아울러 신규 발굴모형을 개발하는 등 위기 아동 발굴체계도 강화한다.

학대판단 전 또는 학대판단이 안 되었어도 필요한 경우, 심리상담, 양육방법 교육 등을 제공하고,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좋은 이웃들' 등을 통해 아동학대 신고도 활성화한다.

올해 10월 시·군·구는 아동학대 조사,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사례관리 전담기관으로 전환됨에 따라, 그에 맞춰 대응인력의 전문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대피해아동의 보호지원도 강화한다.

모든 시군구에 조사인력을 2인 이상 확보하도록 추진*하고, 상시학습 시스템을 구축하여 언제든지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며, 신규 직원들에게 자문·교육 역할을 수행하는 핵심인원제를 시범 도입한다.

* 전담공무원 1인 지역은 업무조정, 업무대행자 지정, 권역별 합동대응 등으로 인력운영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를 표준화하고, 광역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을 전국 확대한다. 또한, 주요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한다.

보호대상아동 후견제도 개선방안

그간 보호대상아동의 상당수(22.7. 기준 2,462명)가 부모의 사망·장기간 소재불명·친권제한 등으로 친권 행사가 사실상 곤란한에도 후견인이 선임되지 않아,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고 있었다.

* 법정대리인의 동기가 필요한 입·퇴원·수술, 금융계좌 개설, 핸드폰 개통, 입학·전학 등 어려움

보건복지부는 보호대상아동의 후견인 선임을 활성화하기 위해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보호대상아동 후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현재 보호대상아동의 후견인 선임은 양육자가 법원에 신청하는 경우가 많으며 재판 준비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앞으로는 시·군·구청장이 보다 적극적으로 후견인 선임을 신청하도록 후견 필요아동 발굴, 후견인 신청 등에 관한 구체적 절차 마련을 추진한다.

유기아동의 신속한 보호를 위해 별도 후견인이 선임되기 전까지 관할 시·군·구청장이 후견인으로 자동 지정되도록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한다.

위탁부모가 후견인이 되지 않더라도 후견인 선임 전까지 아동 양육에 필수적인 범위 내에서 법정대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시·군·구에서 이를 분기별 아동 양육상황점검 시 정기적으로 감독해 권한 남용을 방지한다.

부모의 빛 상속, 특수육구(정신장애 등) 등 전문적 후견 수요가 있는 아동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에 보호대상아동 공공후견인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아동복지, 법률 전문가 등을 모집해 공공후견인으로 양성하고, 후견인이 필요한 보호대상아동과 연계한다.

아울러 시·군·구청장이 '후견감독인'으로 선임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상 근거 마련도 추진한다.

(출처: 보건복지부)

모든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꼭 필요한 서비스를 촘촘하게 집중 지원

등교 전, 학교 후에도 돌봄교육통합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초등돌봄 강화

늘봄학교 시범사업 [2022년] → 늘봄학교 전국 확대 [2027년]

신생아가정을 전문인력이 직접 찾아가는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

39개 지역 [2022년] → 전국 확대 [2027년]

배움에서 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학습 취약 아동 맞춤형 학습 지원

두드림학교 6천 개교 운영 [2022년] → 두드림학교 12천 개교 운영 [2027년]

저소득, 보호대상아동 등 정부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보다 두터운 복지 서비스 제공

저축한 금액의 2배를 정부가 지원하는 아동발달지원계획(디딤씨앗통장) 가입대상↑

보통저축금 [2022년] × 2배 → 저축한 금액의 2배를 정부가 지원하는 아동발달지원계획(디딤씨앗통장) 가입대상↑

보호대상아동* 0~17세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12~17세 [2022년]

계좌 개설 가능 대상 단계적 확대 [2027년]

* 보호대상아동 가정위탁, 공공생활기정,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지내는 아동

가정과 비슷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아동양육 시설 환경 개선

일몰적·단체생활 중심 [2022년] → 전문화 및 소규모화 [2027년]

본인 의견 등을 표현하기 어려운 만2세 이하아동에 대한 집중 조사를 통해 만 2세 이하 아동학대 발견율↑

3.28% [2022년] → 5.00% [2027년]

주거·심리정서·취업·진로 지원 등 자립준비청년 자립정보 제공

자립정보북 발간 [2022년] → 다양한 정보 제공 창구 마련 [2027년]

모든 아동의 누락 없는 출생신고 출생통보제 도입

보편적 출생신고 부재 [2022년] → 의료기관 출생통보제 도입 [2027년]

아동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한 정책 마련

정부위원회 아동의견 제시 위원 선임, 아동의견 수렴 절차 등으로 아동의 정책과정 참여기회 확대

아동총회 年 1회 개최 [2022년] → 환경, 교육 등 분야별 참여기회 확대 [2027년]

지역 특성을 반영한 놀이 환경과 건강 서비스 제공 등 지역 맞춤형 아동정책 마련

국가단위 기본계획 수립 [2022년] → 시도 단위 기본계획 수립 [2027년]



복지광장

장애인권익옹호에 대한 소고

복지포럼

장애인 이동권과 접근성

마땅히 보장돼야 하는 권리로 인식되길



신 해
충청북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장

장애인 권익옹호란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존중하며, 사회 참여 및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다양한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옹호하는 것이다. 장애인들은 비장애인보다는 조금 더 제한적인 환경에서 살아가는 분들이 많다. 구조적으로 불편한 사회환경 시스템을 장애의 원인이라고 보고 있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2006)에서 처럼, 사회환경의 개선을 통해 권리가 보장되지 않으면 차별과 분리, 배제, 거부 등의 심각한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소위 말하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지하철 출근투쟁'을 생각하면 된다. 서울시와 언론들은 그들이 서민의 출근을 방해하는 것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취하려는 몰염치하고도 이

기적인 집단으로만 비취지게 하고 있다. 그들의 주장을 제대로 들어보려는 노력과 왜 저렇게 투쟁하고 있는지도 살펴봐야 하는데 시민들과 장애인들의 갈등만을 부각시키고 있다. 결국 지하철 투쟁을 통해 연대 활동가들은 '사회적 차별과 사회적 분리, 배제, 거부라는 최악의 결과를 낳게 됐다. 물론 방법론은 매우 잘못됐지만, 22년간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일관된다.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이동하고, 안전하게 노동하고, 다같이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받고 싶다는 것! 오직 그것뿐이다. 그렇기에 장애인권리보장법의 제정을 촉구하고 있으며 장애인권리예산의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장애인 권익옹호를 위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충분한 대화와 노력을 통해 해법을 마련할 수 있는데, 그런 자리를 부담스러워하는 우리 정부와 언론, 그리고 사회 전반적인 장애인 권리에 대한 인식과 분위기가 어렵다. '지하철 출근투쟁'처럼 장애인 권익옹호를 위한 당사자들의 투쟁은 오래됐지만,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인식된 것은 불과 10여년 밖에 되지 않는다. 즉, 2011년 9월 '도가니' 영화가 상영된 이후이다. 일명 도가니사건을 기점으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수많은 장애인시설에서의 참혹한 인권유린 행태들이 직원들의 내부고발과 이용장애인들의 증언으로 세상에 드러나게 됐고, 이를 통해 전 국민이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분리, 배제, 거부, 억압된 생활

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특히, 2014년 전남 신안군에서 확인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염전노예 강제노동 사건을 통해 장애계를 포함한 국민들은 장애인의 차별과 학대를 조사하고 사법적 절차도 지원하는 미국의 장애인권리옹호제도(Protection and Advocacy, P&A)와 유사한 기관의 도입 필요성을 공감하게 됐다. 그 결과 2017년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1개소, 총 17개의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설치하게 됐다. 그러나 장애인권익옹호를 위해 설치된 우리나라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지원체계는 아직 자기 발전적인 토양을 구축하는데 있어서 시간적, 사회인식적, 정책적 측면 등 전반적으로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그로 인해 현실적으로 피해 장애인이 충분히 개별적인 지원과 조력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제도적 허점을 이용한 권리침해나 2차적 피해 발생이 합리화되는 사례들이 발생되고 있다. 그리고 피해가 발생하기 전 예방활동을 위한 전문인력이 전무하여 사후약방문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지하철 출근투쟁으로 촉발된 장애인 권익옹호 문제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봉착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과 권리를 보장하는 장애인권리보장법에 대한 21대 국회에서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며, 동법의 장애인

권익옹호 보장을 위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예산 수립도 동반되어야 한다. 또, 장애인 권익옹호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장애인들이 직접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며 장애인들은 자신들의 권리와 이익을 스스로 옹호하고, 자기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 교육환경 개선과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에 대한 장애인 참여보장, 장애인 조직의 활성화, 비장애인들과의 충분한 대화와 상호작용 및 장애인권리 옹호에 대한 적절한 정보와 이해를 전달하고자 하는 대중매체의 역할도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지역사회 예방 기능 확대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고, 장애인의 인권과 참여를 존중하고 보장하기 위한 민간기업 서비스 및 제품개발에 대한 노력도 요구된다. 위와 같이 장애인 권익옹호를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 정부, 장애인 단체, 기업, 지역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협력하여 장애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장애인들이 보다 더 평등한 사회적 지위를 차지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전반에서 발생하는 장애 환경을 개선하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권익을 옹호하고 증진시킬 수 있으며 장애인권익옹호의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김 보 배
청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사무국장

따스한 봄 날씨 활짝 핀 꽃과 함께 가족들과 사진도 찍고, 즐기는 모습에 코로나는 옛날일이 되어버린 것 같다. 복지관에 오시는 분들께 "벚꽃 구경 다녀오셨어요?" 라고 인사드렸더니 "이뵤요... 휠체어 타고 어딜가, 지식한데 짐만 되지", "다른사람 방해되지 뭐, 번 말차에서 보는거지" 라고 답하시는 분들이 많았다. 장애로 인해 예쁘고 멋진 봄의 향기를 가까이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에 너무나 아쉬운 마음이 든다. 가족단위 시민들은 꽃구경 후 저녁 식사, 카페 등을 이용하며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로 주문을 하는데, 반갑게도 내년부터는 이동권·접근성이 어려웠던 키오스크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을 높이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된다. 장애인 이동권 관련 예산 및 교통 이용 개선을 위해 2021년 12월 3일부터 현재까지 지하철 승하차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시위 방식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크게 분분하지만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공간에서의 장애인 이동권은 어떻게? 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장애인이나 고령자들이 비장애인들과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웹 접근성'이라고 한다. 물론 장애 종류에 따라 웹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느끼는 불편함 또한 다르지만 온라인 공간에서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했는지, 어떤 정책이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내년 1월부터 장애인들과 고령자들의 키오스크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제도 개선을 공공 부문부터 시작해 민간까지 순차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공공기관 및 이동·교통시설을 중심으로 시작하여 키오스크에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고,

점자 블록이나 음성 안내 서비스도 제공된다는 내용으로 시행령이 개정된다. 이번 개정은 각종 키오스크나 휴대전화 등에 설치되는 모바일 앱을 장애인들도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전면에 점자 블록이 설치되거나 음성안내가 제공돼야 하며, 키오스크 사용 중 오류가 발생하거나 문의 사항이 있을 때를 대비해 장애 유형에 따른 의사소통 수단을 통해 운영자 등과 의사소통할 수 있는 중계수단 제공도 의무화했다. 우리 지역에도 무인 민원 발급기, 금융자동화기기, 박물관의 종합정보시스템 등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패스트푸드 업체나 편의점 등 대부분 업종이 소규모업체로 무인정보단말기가 장애인 접근을 보장하지 않아 직원들이 있어 도와주면 그 의무를 다했다고 시행령은 밝히고 있어 법적취지를 퇴색시키는 것이라 보여진다. 물론 키오스크 높낮이 조절 기능이 확보되지 않고서도 보조 인터페이스(이어잭, 탈부착 키패드), 소프트웨어(스크린리더, 화면아래보기 및 확대 기능)만을 추가함으로써 장애인들이 이용하는데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고, 이 경우 단말기 전면교체하는 것보다 훨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이라 예상된다. 최근 빠른 속도로 키오스크 및 무인점포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이번 개정으로 장애인뿐만 아니라 고령자 등 그동안 기기 사용에 어려움을 겪었던 많은 사람들이 일상생활 속 불편이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예외규정 마련, 민간 업체들의 비용부담 등을 고려하여 현실적인 추진이 필요하다. '모든 인간은 이동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세계인권선언문 13조 1항 내용이다. 장애인에게 이동권은 기본권이다. 장애인이 물리적 장벽에 가로막혀 집밖에 나가기도 어려운 환경이라면, 자립이나 사회통합이니 하는 가치들이 한낱 구호에 불과할 수 밖에 없다. 우리 사회가 장애인 이동권·접근성에 대한 이해와 함께 이동권은 오프라인, 온라인 안에서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라는 인식과 더불어 인프라 구축을 비용의 문제로 보는 시각이 아닌 인권을 존중하는 시각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동권·접근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공의 책임과 역할을 주체적으로 찾아나갈 수 있을 때 우리 사회는 변화될 것이다. 이것을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보장되는 권리로 자리 잡는 날이 오길 기대한다.

현장의 목소리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박 은 헤
직지드림플러스 보호작업장 사회복지사

현재 직지드림플러스 보호작업장은 장애인근로인(발달장애인 등) 31명과 함께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제조 및 포장하여 모든 수익금은 장애인근로인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와 급여로 제공되고 있다. 보호작업장의 최고 서비스인 전 근로장애인 최저임금 기준 급여를 목표로 현장에 있는 사회복지사는 지급도 열심히 일하고 있다. 그러나, 종사자들은 모두 사회복지사로 생산품을 전문적으로 홍보 및 판매

하기에는 대기업 및 중소기업 등에 밀려 모든 장애인근로인들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생산품 판매가 완료되면 사회복지사들에게 오는 복지가 없는데도 장애인근로인들의 급여를 줄 수 있다는 것에 안심하고 기뻐한다. 그들이 있기에 우리가 있으니 작업장을 유지하기 위해 처음 해보는 사업도 열심히 도전하며, 때로는 무한한 행정업무 등 모든 분야에 다방면으로 적적 박사가 되어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과한 업무로 인하여 우울감과 피로가 올 때면 근로장애인들이 있는 작업장으로 들어간다. "선생님, 예뵤요", "머리 스타일 바뀌었네요?", 의사소통이 어려운 근로인은 손을 잡고 인사를 한다. 절로 입꼬리가 올라가 웃지 않을 수가 없다. 누구에게도 쉽게 듣지 못하고, 쉽게 하지 못할 말들이다. 거짓말을 해도 티가 나고 참 순수하고,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늘 옆에서 한결같이 기다리며 칭찬 한마디에 웃어준다. 이런 사람들을 인생에서 몇이나 만날 수 있을까? 이곳이 나의 직장생활에 기쁨과 행복 에너지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소중하다. 보호작업장이라고 근로만 하는 것은 아니다. 자립과 건강한 사회구성원이 되기 위해 지역사회 자원 활용 훈련, 동아리활동 등 여러 가지 근로장애인들의 개인 욕구에 따른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가장 특화된 프로그램은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공모사업인 보완대체의사소통(Augmentative and Alternative Communication)으로 3년째 담당하고 있다. 보완대체 의사소통은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들이 문자 및 제스처, 사진, 그림 등으로 생각 및 욕구를 표현할 수 있도록 만든 의사소통 수단이다. 발달장애인은 다른 장애유형보다 인지, 의사소통, 사회적 상호작용 능력이 저하되어 의사소통이 어렵기에 개인의 욕구를 파악하지 않은 채 가족, 타인에 의해 짜여진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 그리하여 장애인 당사자가 주도적 결정권자로서 생활할 수 있도록 보완대체 의사소통 프로그램을 3년간 지원한 결과 상호간의 대화 중 3번 이상의 설명에도 소통이 어려웠던 부분들을 AAC를 통해 1번의 설명으로 듣고 이해하여도

전적행동 감소 및 즐거운 소통을 하고 있다. 지역사회에는 보완대체 의사소통판을 보급·비치해두어 누구나 그림글자판으로 주문할 수 있으니 의사소통이 어려운 모든 사람들은 참고하여 지역사회 체험의 재미를 누리며 자신감을 되찾았으면 한다. 직지드림플러스 근로장애인들은 이미 몇 년간의 반복훈련으로 지역사회에서도 개인의 욕구를 자유롭게 표현하며 만족하고 있으며, "카페체험 언제가요?", "옷가게 언제가요?"라며 매일 나에게 묻는다. 그러면 생각한다. 일도 열심히 하고 좋아하는 것을 기다리며, 소극적인 모습에서 적극적인 모습으로 변한 것이 참 뿌듯하고 예쁘다. 이에 가정, 직장, 더 나아가 지역사회의 의사소통에 대한 접근을 하여 장애인 당사자가 스스로 의사소통 권리를 표현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보듬의 삶에 대한 개인별 역량강화를 만들어주고자 한다. 그리고 발달장애인 등에게 평생직장을 제공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참여하고 연대하여 행복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똑똑똑! 법률홍닥터입니다.

취약계층 법률 상담 서비스 법률홍닥터

법률홍닥터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취약계층에게 1차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법률주치의 제도'

지원내용

법률상담, 법교육, 소송절차 안내, 법률구조법민 및 사회복지기관 연계 등의 법률서비스 지원

신청방법

시 간 월~금 10:00~17:00(공휴일 제외)
전 화 043-238-0843
사무실 충북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87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302호

지원 대상

기초수급자·다문화가족·범죄피해자 등 법률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회적 취약계층

도움 받을 수 있는 분야

채권·채무 손해배상
근로관계·임금 개인회생·파산
이혼·친권·양육권 생활법률 전반



이달의 법률상식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 피싱) 피해금 환급제도



신덕범 변호사
법무법인 YK

Q A(60세) 남씨는 어느 날 B경찰서 수사관을 사칭한 자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A씨의 예금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수사를 위해 거래내역을 추적해야 하니, 자기가 불러주는 계좌로 예금을 이체시켜라고 했습니다.

A씨는 두렵고 당황스러워 전화를 끊었지만 현금 지급기로 달려가 수사관이라는 자가 불러준 계좌번호로 자신의 예금 1000만원을 모두 송금했습니다. 현금지급기에서 돌아서자마자 A씨는 위와 같은 수법으로 사기범행을 하는 자들이 있다는 방송을 본 기억이 떠올랐고 망연자실했습니다. 이렇듯 경우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 위와 같이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 피싱)'에 의해 피해를 당한 경우, 2011년부터 시행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소송 등 복잡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편취당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금을 환급받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피해금이 입금된 사기계좌에 대해 지급정지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통상 보이스 피싱 범죄자들은 사기계좌로 입금된 돈을 불과 몇 분 사이에 인출하기 때문에, 피해금이 사기범의 수중에 들어가기 전에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것이 실질적인 피해금 환급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경찰청 112 콜센터를 통해 피해 경위를 설명하면, 수사기관이 금융기관에 지급정지를 요청해 줍니다.

다음으로는 사기계좌를 관리하는 금융기관에 피해구제 신청을 해야 하는데, 수사기관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여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신분증 사본과 함께 피해구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위와 같이 지급정지와 피해구제신청이 이루어지면 금융기관은 금융감독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하게 됩니다.

이는 피해금이 들어 있는 사기계좌 명의인(대부분 사기범이 아닌 타인, 대표통장주)의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환채권을 소멸

시키기 위한 절차인데, 2개월의 공고기간이 지나면 채권은 소멸됩니다.

채권이 소멸되면 금융감독원은 14일 이내에 환급금을 결정하고, 환급금이 결정되면 금융기관은 지체 없이 피해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사기계좌의 잔액이 전체 피해금에 미치지 못할 경우, 각 피해자의 피해금 액수에 비례하여 각자에게 지급될 환급금이 결정됩니다.

인사동정

■ (사)충북지체장애인협회 제천시지회 > 지회장 최우섭 / 2월1일차

인사동정 이용 안내

● 사회복지시설·단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인사(동기)관장 변경, 법인 내 이동 등에 대해 개계를 원하시는 시설은 문의 바랍니다. ☎043-234-0840 김세나 사회복지사

복지정보 제공

[새생명지원센터, 2023년 청소년부모·자립지원패키지 사업 안내]

- 신청대상: 충청북도 거주 만 24세 이하 한부모, 만25세 이상 미혼모·부(혼인기록이 없고 사실혼 관계가 아닌자)
- 사업기간: 2023. 1. ~ 2023. 12.
- 지원내용: 양육용품 및 병원비 지원(연 100만원 이내), 상담, 전문심리치료, 멘토링 지원, 출산 진료비, 건강관리, 자녀양육(돌봄) 연계 등, 주거·교육·취업지원 등
- 문의 및 신청: 새생명지원센터(☎ 1577-3053)

[충북사회복지협의회, 2023년도 유니버설디자인체험센터 교육 신청 안내]

- 진행일시: 3월 ~ 12월 (연중 신청가능)
- 진행장소: 유니버설디자인체험센터(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87, 1층)
- 진행대상: 초·중·고등학생, 대학생, 성인 등 도내 사회복지시설(기관) 근무자 및 이용자
- ※ 원활한 교육 진행을 위하여 신청 인원은 회차당 20명 이내로 가능함
- 주요내용: 유니버설디자인(UD) 이론 교육, 유도체험관 및 주택체험관 견학
- 신청방법: 전화 접수(T.234-0840~2)
- 담당자와 일정 조율 후 신청서 제출
- 문의: 043-234-0840
- 참고: https://www.043w.or.kr/

[우양재단, 2023년 상반기 청년봉사 공고]

- 신청대상: 청년 복지, 청년 먹거리에 관심이 많고 청년을 대상으로 직접 사업을 진행하거나 진행 예정인 사회복지시설(복지관,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센터 등) 중, 아래 세 가지 조건에 모두 부합하는 대상을 모집하고 선발 대상자에게 지원금 입금 및 지출증빙이 가능한 곳
- 2023년 04월 기준 대학 정규학기 재학생 (휴학생 지원불가 / 대학원, 사이버대학, 방송통신대학, 학점은행제 제외)
- 만 29세 이하까지 신청 가능

- 생활보호대상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의 자녀 또는 학자금지원구간(1~4구간/2023년 1학기 기준) 해당자 중 본인 명의로 서류 제출이 가능한 자

- 모집인원: 기관당 최소 2명 ~ 최대 10명 신청 가능 / 총 134명 선발
- 지원금액: 1인당 총 45만원(3개월동안사용)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신청서 작성 후 구글폼 접수)
- 서류접수기간: ~2023.5.9.(화) 밤 11시 59분까지
- 선정표표: 2023.5.18.(금) 오후, 본 재단 홈페이지(www.wooyang.org) 공지사항을 통해 발표
- 문의: 02-333-1287

[현대모비스X푸르메재단, 2023 현대모비스 장애아동이동편의 보조기구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지원항목: 장애아동 보조기구
- 지원대상: 만18세 이하장애아동·청소년
- 품목: 맞춤형 보조기구(휠클)
- 지원규모: 1인 최대 250만원
- 신청기간: ~2023.5.22.(월)
- 신청방법: 구비서류 이메일 제출
- 선정결과: 6월 중
- 보조기구 납품: 7월 이후
- 문의: 02-6395-7003
- 참고: http://purme.org/board/distribution/7351

[사회복지법인 따뜻한동행, 2023 첨단보조기구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지원대상: 성장 가능성이 높은 역량 있는 20~30대 장애인, 성장의 잠재력이 있는 장애 아동·청소년 (10대)
- 지원내용: 첨단 의수족, 전(수)동휠체어, 안구마우스 등 당사자 및 전문가와의 협의를 통한 개인별 맞춤형 첨단보조기구 지원
- 차량개조 지원 불가
- 제출서류: 홈페이지(www.walktogether.or.kr) 참고
- 접수기간: ~2023.5.31.(화) 연중접수

-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 / yeonjelly@walktogether.or.kr
- 문의: 070-7118-2089

[이랜드복지재단, SOS위고(WEGO) 사업 / 주거, 생계, 치료, 자립 지원]

- 지원대상: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각지대 저소득 가정
- 지원기준: 지원의 사각지대, 위기상황, 경제상황, 삶의 변화 및 문제해결 가능성
- 신청기간: 상시접수
- 발표기간: 신청서 접수 후 3일 이내
- 지원내용: 주거비, 생계비, 치료비, 자립비
- 신청방법: 홈페이지 (http://everybranch.co.kr) 내 기관 신청 * 본인신청불가, 기관을 통해서만 신청 가능
- 소요기간: 최대 20일 소요 → 접수 후 선정까지 3일 소요
- 심사기준: 자립, 자활 → 긴급, 위기 중심의 지원
- 문의: 02-2644-0110 / 070-4241-9629
- 참고: www.elandcsr.or.kr

[여송사회복지재단, 제29차 여름방학 독서캠프 공모사업 안내]

- 공모주제: 아동 독서캠프 프로그램 (비대면 프로그램 가능)
- 지원규모: 1개소당 200만원 (총 20개소 지원 예정)
- 신청대상: 전국 17개 시·도 아동복지 관련 시설 및 기관, 학교 등
- ※ 사회복지관, 지역아동센터, 그룹홈, 아동보육시설 / 장애인복지관 및 시설 가능
- 캠프 진행기간: 2023.7.17.(월)~8.31.(목) 기간 내 진행
- 신청기간: 2023.4.17.(월)~5.15.(월) 24:00까지
- 신청방법: 홈페이지(www.yeosong.kr) 접수
- 결과발표: 2023.6.12.(월) 13:00이후
- 문의: 02-553-3488

자원 봉사자 모집

- ▶ 기관 내 문구 전자부품 조립작업 관리센터 : 충북광화원재단원 활동기간: 4.1 ~ 5.31 전화번호 : 043-253-7598
- ▶ 이주배경청소년과 함께 하는 '꿈빛 교실' 관리센터 : 충주시가족센터 활동기간: 4.1 ~ 5.31 전화번호 : 043-846-2253
- ▶ 만성정신질환자 재활프로그램 진행 보조 관리센터 : 음성군정신건강복지센터 활동기간: 4.1 ~ 5.31 전화번호 : 043-872-1883
- ▶ 체력단련실 안내 및 정리정돈 활동 관리센터 : 청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활동기간: 4.1 ~ 5.31 전화번호 : 043-275-7411
- ▶ 아이패드 및 체험실 자원봉사자 모집 관리센터 : 충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활동기간: 4.1 ~ 5.31 전화번호 : 043-845-7505
- ▶ 복지관 조리지원 자원봉사자 상시 모집 관리센터 : 증평군장애인복지관 활동기간: 4.1 ~ 5.31 전화번호 : 043-835-4288
- ▶ 도시락 배달 자원봉사자 모집 관리센터 : 괴산군노인복지관 활동기간: 4.1 ~ 5.31 전화번호 : 043-834-3411
- ▶ 느린학습 아동 교육 봉사 모집 관리센터 : 목령종합사회복지관 활동기간: 4.1 ~ 5.31 전화번호 : 043-216-3060

지역사회봉사단 모집

관리센터 :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활동기간 : 연중
전화번호 : 043-234-0840~2
*자료출처 : www.vms.or.kr

지역사회봉사단

재능나눔연합봉사단, 농촌일손돕기 봉사활동 진행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영석) 소속 재능나눔연합봉사단(단장 김영준)은 지난 7일 청주시에 위치한 평촌농장에 찾아가 농

촌일손돕기 봉사활동을 했다. 재능나눔연합봉사단은 2019년 12월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봉사단으로 위촉되어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김영준 단장은

“현재 많은 농장들이 인건비 문제로 인력이 부족한 상태이며, 봉사활동을 하면서 농촌의 일손부족에 위치한 평촌농장에 찾아가 농

작물을 복지단체 및 시설에 나눠 줄 수 있는 기쁨은 하루의 고단함을 녹여주기에 앞으로 다양한 방향으로 농촌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지역사회봉사단은 VMS에 가입된 2인 이상으로 구성된 봉사단체로,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 봉사활동이 가능하다.

지역사회봉사단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단체는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유선(☎234-0840~2) 또는 이메일(mjp7117@naver.com)을 통해 문의 가능하다.

충청북도 출산육아수당 신청하세요!

신청대상 및 지원금액 총 1,000만원

Table with 5 columns: 지원금액, 지원시기, 지원조건, 신청기간, and notes. It details the 23rd birth cohort's eligibility and payment schedule.

Table with 6 columns: 지원금액, 지원시기, 지원조건, 신청기간, and notes. It details the 24th birth cohort's eligibility and payment schedule.

신청방법

· 부 또는 모가 출생아동의 주민등록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참고사항

· '23년도 1회차는 타 시도에서 출생 후 전입 시 지급하지 않으며, 그 외 회차는 전입 월부터 월할하여 일괄지급
※ 기준 : (100만원 지급차수) 월83,000원, (200만원 지급 차수) 월166,000원

문의처

- 충청북도 인구정책담당관 ☎ 043-220-4773-4
- 청주시 여성가족과 ☎ 043-201-1762
- 상원구 주민복지과 ☎ 043-201-5176
- 서원구 주민복지과 ☎ 043-201-6175
- 흥덕구 주민복지과 ☎ 043-201-7172
- 청원구 주민복지과 ☎ 043-201-8175
- 충주시 기획예산과 ☎ 043-850-5262
- 제천시 기획예산과 ☎ 043-641-5056
- 보은군보건소 건강증진과 ☎ 043-540-5615
- 옥천군보건소 건강관리과 ☎ 043-730-2152
- 영동군 기획감사관 ☎ 043-740-3042
- 증평군보건소 건강증진팀 ☎ 043-835-4226
- 진천군보건소 건강증진과 ☎ 043-639-7362
- 괴산군보건소 건강증진과 ☎ 043-830-2356
- 음성군보건소 건강증진과 ☎ 043-871-2173
- 단양군보건소 건강증진과 ☎ 043-420-3228



복지/만/평

시너지

이창신 www.bokmani.com

